‘최고급 환대’ 외국인 80% 일본판 템플스테이 ‘슈쿠보’ 인기 비결은?

조계종 주최
‘한 · 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5~28일 일본 고야산과 교토 · 나라 지역에서 ‘일본 간사이 지역 세계유산 사찰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한 · 일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간사이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찰을 방문해 사찰 보존 정책과 운영 사례를 비교 · 취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 취재에는 불교계 언론 9곳이 참여했다. 탐방단은 곤고부지(金剛峰寺)와 단상가람(壇上伽藍), 호류지(法隆寺), 도다이지(東大寺), 뵤도인(平等院) 등을 찾아 일본 불교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 활용 방안을 살폈다. 편집자 주


혜광원은 호마기도, 아자관 명상, 사경, 오쿠노인 야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야산 대표 슈쿠보 혜광원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혜광원 아자관 수행지도법사 칸가쿠 스님.


칸가쿠 스님의 지도 아래 아자관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


다다미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혜광원의 객실.

고야산 내 50여 개 운영
호마기도 · 아자관이 ‘대표’
1박 2만엔부터 10만엔까지
미식 · 휴식으로 긴장감 완화

일본 고야산=김내영 기자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수행을 체험하는 일본판 템플스테이 ‘슈쿠보(宿坊)’. 헤이안 시대부터 참배객과 승려를 위한 숙소로 시작된 슈쿠보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다양한 불교 수행과 최고급 환대 서비스가 결합한 일본 대표 프리미엄 영성 관광(Spiritual Tourism)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일본 전역에서 슈쿠보가 운영되고 있지만, 진언종 총본산이 자리한 고야산은 그 중심지로 꼽힌다.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 스님(홍법 대사)이 수행과 교단의 거점으로 삼은 이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 고원이다. 현재 고야산 내에는 약 100개 사찰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여 곳이 슈쿠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야산은 2004년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후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했고, 슈쿠보도 글로벌 수행 공간으로 변모했다.

조계종이 2월 25~29일 주최한 ‘2026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에 참가한 취재단이 25일 고야산 대표 슈쿠보인 혜광원(에코인, 惠光院)을 찾았다.

혜광원은 외국인 친화적이고 몰입도 높은 수행 체험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1인실부터 3~4인실까지 30여 개 객실을 갖췄으며, 하루 평균 50명이 찾는다. 참가자의 80%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사실상 해외 방문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주 스님 10명을 포함해 직원 30명이 상시 근무하며 영어로 의식과 교리를 직접 설명한다. 숙박 시설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불교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적극적인 포교·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혜광원 아자관 명상 수행지도법사 칸가쿠(冠岳) 스님은 “고야산의 각 사찰마다 숙박 시설이 있어 참배와 기도를 함께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별도의 대대적 홍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야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혜광원의 수행 프로그램은 진언종의 밀교 의식으로 구성된다. 한국 템플스테이가 참선·108배·스님과의 차담 등 수행자의 삶을 간접 체험하는 방식이라면, 고야산 슈쿠보는 밀교 고유 의례와 수행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불을 피워 번뇌를 태우는 호마기도(護摩祈祷)와 ‘아(阿)’ 자를 관하며 우주와 내가 하나 됨을 체득하는 아자관(阿字観) 명상이 그것이다. 아자관은 초·중·고급 단계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 체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아침 예불과 사경, 스님의 영어 해설이 곁들여진 오쿠노인(奥之院, 구카이 스님의 영묘가 모셔진 곳) 야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재단의 아자관 명상 실참을 지켜본 칸가쿠 스님은 “아자관 수행을 하다 잡념이 떠오르면 ‘다른 생각을 해야지’라는 판단마저 내려놓고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깐이라도 스스로 편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명상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 경험이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식사 역시 중요한 체험 요소다. 일본 사찰음식 ‘쇼진료리(精進料理)’는 시각적 완성도를 극대화한 코스 요리 형태로 제공된다. 객실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는 ‘헤야쇼쿠’ 방식은 전통 료칸 서비스에 가깝다.

고기와 자극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수행의 일부로 소박함을 강조하는 한국의 ‘발우공양’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국이 ‘비움’에 방점을 둔다면, 슈쿠보는 ‘정갈한 환대’가 특징이다.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숙박 환경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다미방에 유카타를 제공하고, 대욕장과 온천 시설까지 갖춘 구조는 고급 료칸을 연상시킨다. 수행 공간이면서도 안락한 휴식 분위기를 갖춰 종교적인 긴장감을 완화한다는 평가다.

다만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1박 5~10만 원대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인 한국 템플스테이와 달리 슈쿠보의 1박 숙박료는 2만엔(한화 약 18만원)부터 시작해 스위트룸의 경우 10만엔(한화 약 90만원)을 웃돈다. 이 때문에 개별 사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자칫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문적인 운영, 고급 서비스가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경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템플스테이가 ‘휴식과 비움’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확립했다면, 고야산 슈쿠보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고유 의식의 스토리텔링의 성공 모델로 읽힌다. 사찰 재정 안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고민하는 한국 불교계에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면에 이어

“동아시아 불교 교류사 상징”


아스카데라 주지 우에지마 호쇼 스님과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혜운 스님(왼쪽)이 건립 당시 모습을 복원한 조감도를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불교 문화의 정수가 담겼지만, 세월의 풍파는 피할 수 없었다. 아스카데라는 887년과 1196년 낙뢰 화재로 소실됐고, 1632년과 1826년 재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소실과 재건을 거듭한 아스카데라의 원형은 1956년 발굴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창건 당시 가람은 탑을 중심으로 동서쪽과 북쪽에 각각 금당을 배치하고, 바깥쪽으로는 회랑을 둘렀으며 중문·남문·서문과 강당을 갖춘 장대한 구조였다. 건물 배치는 한자 ‘품(品)’자 형태로, 이는 고구려 사찰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람 배치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대규모 농지 용수로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기와와 초석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됐다”며 “창건 당시 절터는 현재보다 약 20배 넓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류지(法隆寺)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를 계기로 고대 일본 수도였던 아스카와 후지와라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됐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 정치·문화 교류의 산물로 평가되는 아스카데라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 추진됐다. 이번에 신청된 ‘아스카·후지와라 궁도’ 유적군에는 아스카데라 터를 비롯해 아스카와 후지와라 궁전터, 다카마쓰즈카 고분 등 총 22개 유적이 포함됐다.

우에지마 호쇼 스님은 “아스카 시대 일본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이곳은 일본 국가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됐으며, 불사를 위해 건너온 한반도인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해 문화적 영향을 남겼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불교 교류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불교계도 아스카데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이번 ‘한·일 불교문화 비교 기획’을 통해 양국 불교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특히 한반도 불교문화와 깊이 연결된 아스카데라의 소식을 접하게 돼 반갑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좋은 결실로 이어져 한·일 불교가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나라=김내영 기자

불교와 친해지는
특급 마법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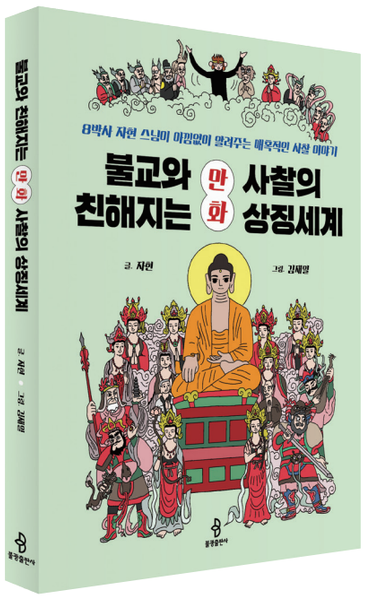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아낌없이 알려주는 매혹적인 사찰 이야기!



문체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세계 上·下』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다!

불교와 (만화) 사찰의
친해지는 상징세계

자현 글 | 김재일 그림 | 304쪽 | 22,000원



켜켜이 쌓인 오래된 마음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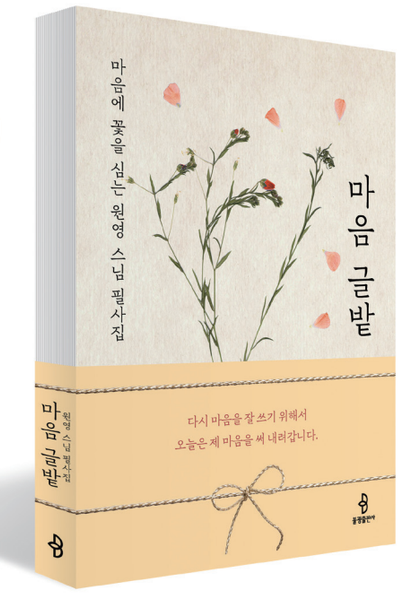
삶을 한층 가뿐히 살아가도록 돕는
원영 스님의 ‘마음 글밭’에서 노닐다!

공들여 선보이는 불광출판사의 첫 필사책

삶을 통과하며 다져진
원영 스님의 문장 세계를
이제 필사로 만나다!

하루 한 장씩 채울수록
한 겹 가벼워지는
100일의 마음 리셋 여정

원영 지음 | 240쪽 | 22,000원



마음 글밭
마음에 꽃을 심는 원영 스님 필사집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